



태권도진흥재단은 11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홍수환 전 WBA 세계챔피언을 초청해 프로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사진은 특강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단에 선 홍수환 전 WBA 세계 챔피언

“프로페셔널한 정신으로 태권도 발전 앞장서 줄 것”

태권도진흥재단서 초청 특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11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홍수환 전 WBA 세계 챔피언을 초청해 프로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오응환 이사장 등 재단 및 자회사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수환 전 챔피언은 4점 5기 신화를 이루기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 재단 직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홍 전 챔피언은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만이 승리 할 수 있고 우리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강조 하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프로정신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오응환 이사장의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재단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격려를 더했다.

또, 미국 방문 시 태권도장을 찾았을 때 "미국 태권도 수련생들이 예의를 다해 사범님께 인사를 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권도

야 말로 국위선양의 모범이라고 생각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전 직원들이 프로정신으로 더욱 정진해 태권도 보급과 활성화 등에 있어 항상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재단은 이제 안정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로 홍수환 챔피언이 말한 프로다운 자세와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이 재단 임직원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기 태권도 발전을 위해 프로정신을 갖고 전문가다운 열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NC, 창단 첫 우승 이끈 이동욱 감독 전격 경질

선수단 이탈행위 등이 주원인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이동욱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NC는 11일 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NC와 이 감독의 계약은 2024년까지였다.

NC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선수단 이탈행위와 성적 부진으로 침체된 분위기의 쇠신을 위해 이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2011년 NC 다이노스 창단과 함께 수비코치로 합류, 수비진 안정화에 기여했다.

2018년 10월에는 2대 사령탑으로 수장직에 올랐다. 김경문 감독 체제(2011~2018년) 아래에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한 NC는 누구보다 팀을 잘 알고 있는 이 감독이 방점을 찍어주길 원했다.

NC의 바람은 2년 만에 현실이 됐다. 이 감독이 이끌던 2020년의 NC는 기존 강호들을 차례로 쓰러뜨린 끝에 창단 첫 통합 우승이라는 대업을 썼다.

NC는 지난해 5월 이 감독에게 3년 재계약이라는 우승 선물을 선사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했던 이 감독을 멈춰 세운 것은 성적이 전부 아니었다.

지난해 박석민, 권희동, 박민우, 이명기가 연루된 술관 파동은 야구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이들의 이탈 행동은 유례없는 KBO리그 중단의 원인이 됐다.

NC의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석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징계 해제 하루 전인 지난 3일에는 1군 코치 한 명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코치를 폭행하는 또 다른 참사가 벌어졌다.

선수단을 총괄하는 이 감독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NC는 최하위로 떨어진 성적과 선수단 관리를 이유로 들어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이 감독과 결별했다.

한편 NC는 곧장 차기 감독 인선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북체육회 축구단, 재단장 완료

코로나19로 주춤... 활동 재개

향후 각종 대회 출전하는 등

시·군 동호인과의 경기 예정

오늘 익산시 직장대항 대회 출전

전북체육회축구단(단장 정강선)이 재단장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지난 2007년 결성된 전북체육회축구단은 그동안 월 1회 시·군을 순회하며 축구 등 호인들과 친선경기를 치르는 등 친목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체육활동에 제약이 생겨 주춤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전북체육회 및 도내 시·군체육회 직원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축구단은 앞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등 시·군 동호인들과도 정기적으로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먼저, 12일 익산금마축구공원에서 열리는 전북도지사배 직장대항 축구대회에 출전한다.

한편 이날 정강선 단장은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단복 및 용품을 전달했다. /장은성 기자



리버풀 '우승 경쟁 안끝났다'

EPL 아스톤전 2-1로 이겨

맨시티와 승점 86으로 같아

리버풀이 아스톤 빌라를 꺾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정상 향한 도전을 이어갔다. 리버풀은 11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 빌라 파크에서 열린 2021~2022 EPL 아스톤 빌라전에서 2-1로 이겼다.

리버풀(26승8무2패)과 맨체스터 시티(27승5무3패)의 승점은 86으로 같아졌다. 다만 리버풀이 2경기, 맨시티가 3경기를 남겨둔 여전한 맨시티가 유리하다. 득실차에서도 맨시티가 +68로 리버풀(+65)을 앞섰다.

역전 우승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승리가 절실했던 리버풀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빼앗겼다. 아스톤 빌라 더글러스 루이즈는 자신의 헤더를 골키퍼가 쳐내자 달려들며 발로 직접 마구리었다.

예상 밖 일격을 당한 리버풀은 3분 뒤 균형을 맞췄다. 세트 피스에서 혼전 중 흐른 공을 조엘 마티프가 득점으로 연결했다.

전반을 1-1로 마친 리버풀은 후반 20분 사디



오 마네의 감각적인 헤더로 승부를 뒤집었다. 리버풀은 남은 시간 1골차 리드를 끝까지 지켰다.

손흥민과 득점왕을 놓고 다투는 모하메드 살라의 교체 출전으로 20분 가량 뛰었지만 골맛을 보진 못했다. 현재 살라가 22골, 손흥민이 20골을 기록 중이다.

승점 3을 챙겼지만 리버풀로서는 마냥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핵심 미드필더 파비뉴가 왼쪽 햄스트링쪽 통증을 호소하며 전반 30분 만에 교체됐다. 파비뉴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첼시의 FA컵 결승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뉴시스

사랑의 기쁨! 그리고 힐링의 발원!

제26회 지리산 운동바래봉 청금죽제

2022. 4. 28. (목) ~ 5. 22. (일)

운동바래봉 및 허브밸리 일원